

SOUTH ASIA

11

ISSUE PAPER

남아시아
이슈페이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도의 입장

최정욱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월 24일에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인도는 친러시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문에 대해 15개 회원국 중에서 11개국이 찬성했지만, 중국 및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인도는 기권을 행사했다.

인도의 친러 입장을 경제적 논리에서 검토하면 설명이 어렵다. 인도의 개방정책 이후 고도 경제성장의 요인은 대외무역섹터의 증가 및 해외 자본투자인데 그 주역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유일하게 주요 무역국 중 인도가 흑자를 내는 국가인 반면 러시아와의 거래는 미국의 10%도 되지 않는다. 현재 다자안보동맹이자 공급망 동맹인 쿼드(QUAD)에 가입되어 있는 인도는 향후 미국이 개편할 경제 질서에 성공적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대외관계를 구축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러시아를 지지하는 대외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인도가 갖고 있는 안보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러시아에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오랜 역사동안 무기체계를 러시아산에 의존해왔을 뿐 아니라, 독립이후부터 대외관계에서도 일관되게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인도가 미래에 서아시아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리더십을 지향한다면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 및 미국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쿼드에 깊이 편입되어 새로운 대외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인도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안보의존도를 낮추어가야 할 시점에 선 것으로 보인다.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인도의 침묵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날이 2월 24일이다. 당초 침공군의 예상과 달리 전쟁은 가까운 장래에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전화 되어가고 있다. 2021년 연말부터 몇 개월간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밀집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가 다분했고, 실제로 세계 정보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행정부가 전쟁발발 가능성을 누차 경고하였음에도 많은 국가들은 21세기 문명시대에 아무런 적대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정부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하지만 인도정부는 막상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 당사국이 아닌 나라 중 가장 긴박하게 움직인 나라 중 하나이다. 그것은 당장 우크라이나에 유학을 명목으로 나가있는 인도인들이 2만 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월말 경 인도정부가 본국으로 송환한 인도유학생이 22,500명에 달한다. 인도 학비의 절반정도 비용만 들여도 의대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도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 유학을 떠났고 이 결과 우크라이나의 전체 외국유학생 중 인도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디 수상은 세 개 부처에 이러한 인도유학생을 본국으로 귀소시키는 책임을 부여하고 그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푸틴과 통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이고 제2의 도시인 카키브 혹은 하르키우 시에서 의대 4학년인 인도학생이 식료품을 구하려 대피소를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 명운을 달리하였다. 인도에서 주요한 주 의회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엄중하게 다가왔지만, 인도 정부의 러시아 침공에 대한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국제평화유지의 책무를 지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측 요구로 소집되었는데, 여기서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상정되어 15개국 회원국 중 침공국이자 의장국인 러시아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중 11개국이 찬성하였지만 중국, 아랍 에미리트, 그리고 인도는 기권하였다. 이것은 당시 안보리 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도 방송을 통하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와 아랍 에미리트가 보여준 태도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알력 관계를 고려하면 러시아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것에도 찬성하지 않기에 이 나라의 행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친미 국가이고 우리나라와도 특별전략적 동반관계를 맺고 있는 아랍 에미리트가 기권한 것을 두고 다들 놀라는 분위기다. 이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중동국가들과 유지한 우호적인 관계에 어떤 이상 징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원인이 대이란 제재 해제 노력에 있든 아니면 예멘의 반군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불만에 있던 예상 밖의 처신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세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은 인도이다.

2. 경제적 논리 때문인가?

인도는 그럼 왜 이러한 친러시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이것은 경제적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인도는 구소련 블록의 붕괴이후 시장 개방정책으로 대외무역 의존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 가장 돋보이는 대외 무역의 성장은 바로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독립이후 냉전이 종식되기까지 코끼리 성장률이라고 할 만큼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하고 한해 경제성장률이 태풍에 의해 좌우될 만큼 농산물에 의존하던 인도의 경제는 공산품, 특히 무기의 상당부분이 구소련 경제권에 편입되어 조달되고 있었다. 한 마디로 의약품과 보석류 등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변변한 공산품이라고는 없고, 다소 폐쇄적인 경제를 운영하던 인도가 개방정책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외무역섹터의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공산품의 국내생산을 위한 자본투자도 이러한 성장을 견인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의 상당부분은 미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이다.¹⁾ 실제로 2020-21년 기준으로 미국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큰 외국인직접투자국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디의 중요한 제조업육성정책인 “Make in India” 정책의 자금줄 중 상당부분은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물품의 이동이나 서비스 섹터, 특히 정보(IT) 및 금융 섹터의 고급 인력의 이동을 감안하면 인도경제는 미국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의 무역거래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나라는 2018년부터 한해를 제외하고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바뀌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은 인도가 무역거래를 하는 상위 17개국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나라이다. 그것도 단일국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나라이다.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은 인도의 2위 무역국이지만, 인도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적자를 내는 나라이다. 러시아 자체는 아예 상위 20위권 내 순위에도 들어있지도 않을 정도이다. 러시아와의 거래규모는 약 10억 달러 정도로 미국의 10%도 되지 않는다.

1) <https://m.rbi.org.in/Scripts/AnnualReportPublications.aspx?Id=1336>

〈표1〉 인도의 대외무역 규모의 나라별 순위

	국가	수출	수입	합	흑자액
1	미국 United States	73.3	40.3	113.6	33.0
2	중국 China	16.61	65.26	81.87	-48.65
3	아랍에미리트 UAE	28.81	30.22	59.03	-1.41
4	사우디아라비아 SaudiArabia	6.39	20.32	26.71	-13.93
5	스위스 Switzerland	1.21	16.9	18.11	-15.69
6	독일 Germany	8.21	13.69	21.9	-5.48
7	홍콩 Hong Kong	13.7	20.34	34.04	-6.64
8	인도네시아 Indonesia	4.12	15.06	19.18	-10.94
9	한국 South Korea	4.85	15.65	20.5	-10.8
10	말레이시아 Malaysia	3.71	9.08	16.93	-5.30
11	싱가포르 Singapore	7.72	9.31	16.93	-1.59
12	나이지리아 Nigeria	2.22	9.95	16.36	-11.00
13	벨기에 Belgium	5.03	8.26	16.33	-5.29
14	카타르 Qatar	0.90	9.02	15.66	-13.55
15	일본 Japan	4.66	9.85	15.52	-4.75
16	이라크 Iraq	1.00	10.84	15.08	-13.42
17	쿠웨이트 Kuwait	1.25	4.97	14.58	-12.18

(출처: 위키피디아, 단위 10억 달러, 2019-20년)

나아가, 인도는 잠재적 군사적 분쟁 대상국인 중국과의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앞으로 기타 지역으로 다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미국이 재편하고자 하는 경제 질서에 보다 깊숙이 편입될 수밖에 없다. 인도는 단순한 편입이 아니라 이 새로운 질서에서 중국의 대체경제로서 중심축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냉전 이후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면, 미국이 추구하는 새 질서는 이러한 중국 중심의 생산망을 재편하여 새로운 국제분업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 대체국이 동남아나 인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 중에서도 굳이 고른다면 인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동남아와 달리 단일경제권으로 현재 세계생산을 충분히 담당할 정도의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인구수가 세계 2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의 중위연령이 20대 후반에 불과한 나라이다. 고령화되어 가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잠재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가 유일하다.

게다가 인도는 최근에 대중국 견제 복합동맹인 쿼드(QUAD)에 가입한 국가 중 하나이다. 그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동맹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동맹은 기본적으로 안보동맹이지만, 그

기저에는 경제적 동맹도 깔려 있다. 이러한 경제동맹은 미국의 시장, 인도의 생산기지, 호주의 자원, 일본과 미국의 기술공조를 기반으로 한다.

한편, 갈수록 강화되는 미국의 경제비중과 쿼드(QUAD) 다자동맹의 중요성만이 인도가 새로운 대외관계를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더하여, 이번 전쟁과 서방의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로 인하여 발생한 공급체인 붕괴로 초래된 물가의 상승은 이번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인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적 공급망의 와해로 인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뛰어 오르는 물가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국 원유 수요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동시에 전 세계 원유수입국 2위인 인도는 국제유가의 상승뿐만 아니라 국제공급망의 혼란에 기인한 생필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재기를 노리는 경제에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통제가 어려운 인플레이션은 실업자들과 급여생활자 모두에게 고통스런 삶을 가져다주고 이것은 내후년에 있게 되는 하원(Lok Sabha)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인도와 러시아 간의 원유 할인 수입에서 보듯이 일시적으로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싼 가격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기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국제유가에 따른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서방이 포기한 러시아에서의 경제적 기회와 공백을 인도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대러시아 무역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인도 경제계 일각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 시장만 볼 때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인도가 러시아가 아닌 다른 시장과 거래할 때 인도기업의 이미지와 국가이미지 전반에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또한 이미 광범위한 제재를 겪고 있고 앞으로 추가될 소지가 있는 러시아와의 거래로 인하여 자칫하면 인도기업들은 미국의 간접적인(secondary) 제재대상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인도의 도움이 아무리 절실히 필요한 미국이라고는 하지만, 인도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3. 안보위협에 따른 대러시아 국방의존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인도는 세계대다수의 방침과 달리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처럼 처신하고 있는가? 이러한 인도의 입장은 인도가 직면한 안보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대러 의존성을 감안하면 이해가 될 수 있다. 인도는 현재 자국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의 러시아 의존성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러시아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체계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가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무력분쟁을 국가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육해공군 무기전반에 걸쳐서 약 70%를 러시아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육군의 경우 거의 90%가 러시아제이다. 게다가 군사작전에 중요한 특정 무기체계는 100%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해군이나 공군 역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대러시아 의존은 절대적이다.²⁾ 예를 들어, 인도의 유일한 항공모함도 러시아제이다. 이러한 러시아 무기 의존은 과거의 유산만이 아니며,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현재 인도는 미국의 패트리엇대신에 러시아 대공방어시스템인 S-400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벌써 1987년 이후 두차례에 걸쳐 핵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대여하여 운용한 경험이 있는 인도는 현재 2대의 핵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대여하기로 계약을 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미국이 최근에 호주에 핵잠수함을 수출하기로 하였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라고 평가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러시아산 의존 자체는 인도와 러시아 간의 오랜 역사적 산물이다. 러시아는 인도와의 대외관계에서 독립이후 일관성을 지킨 나라이다. 네루가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러시아는 인도가 독립 후 1959년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을 때 인도 편에 서주었다. 1961년에는 인도가 포르투갈 영토인 고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합병할 때, 미국은 유엔에서 인도군의 철군을 요구하였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요구에 동참하지 않고 기권하였다. 1962년에 러시아는 그 당시 최신예 초음속 전투기인 미그21기를 인도와 합작으로 인도에서 생산될 수 있게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혈맹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전투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보면 얼마나 파격인지 알 수 있다. 또한 1971년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독립을 두고 전쟁을 할 때 오늘날 방글레데시인 동파키스탄에서 인도 쪽으로 대량난민사태가 발생하자 인도는 이 분쟁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에 반대하여 영국과 미국이 인도에 대항하여 해군을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벌일 때 인도 편을 서준 것도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그 직전에 체결된 우호조약을 기반으로 함대를 파견하여 인도를 지원하였으며,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종전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도 거부권을 두 차례나 행사하였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에 힘입어 인도는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또한 1962년과 1971년도에 카시미르 지역을 두고 파키스탄과 분쟁을 할 때,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하려는 안보리 결의를 인도의 요구대로 거부한

2) <https://www.outlookindia.com/national/india-s-defence-dependence-on-russia-complicates-calls-of-rebalancing-news-184764>

것도 러시아이다. 반대로 1956년 러시아가 헝가리혁명을 진압하였을 때와 1979년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였을 때, 인도는 유엔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관성 있는 인도와 러시아의 비경제적 유대관계는 미국이 오랜 기간 파키스탄에 보다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다 최근에 인도와 가까워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분명히 인도가 미래에 서아시아지역의 맹주 이상의 세계적 리더십을 염두에 둔다면 인도외교의 주력은 더 이상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에 놓여서는 안 되며,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여기에서 미국은 인도에게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만 한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산 무기들이 제대로 운용이 안되어 전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사실도 인도의 국방 관계자들에게는 추가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고 이것은 대러시아 안보의존을 낮추어 가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인도는 현재의 대러시아 국방의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인도가 쿼드(QUAD)에 보다 깊숙이 편입되어 가는 만큼, 즉, 미국, 호주, 일본과 관계가 강화되는 만큼 인도는 탈러시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